

韓中 ‘앞/뒤’ 意味의 空簡認知*

金善雅**

目 录

1. 서론
2. 선행연구
3. ‘앞/뒤’, ‘前/後’의 韓中認知體系
4. ‘앞/뒤’, ‘前/後’의 韓中隱喻比較
5. 결론

1. 서론

공간 오리엔테이션이란 공간에 방향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다.¹⁾ 화자와 청자가 서로 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는 대개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시적 좌표가 서로 대조적인 관계인 ‘위’, ‘아래’, ‘앞’, ‘뒤’, ‘안’, ‘왼쪽’, ‘오른쪽’ 등 개념과 관련 있는 직시(deictic) 오리엔테이션, 화자, 청자 대신 직시적 중심이 자동차나 의자와 같이 무생물인 객체 직시(object-deictic) 오리엔테이션, 강이나 산, 바다와 같은 환경적인 지표들과의 관련을 통해 장소를 표시하는 지표(landmark) 오리엔테이션, ‘东西南北’과 같이 화자나 청자 또는 특정한 개체의 위치와는 관계없는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준거점에 의해 규정되는 기본방위(cardinal)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공간 오리엔테이션

* 이 논문은 2011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龍仁大學校 中國學科 助教授.

1) 이성하·구현정 역, 『문법의 인지적 기초』, 서울, 박이정, 2004, 36-41, 87

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어적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것에는 범문화적으로 보편적인 모형과 문화특정적인 모형이 있다. Heine(2004)는 이러한 공간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준거를 기준으로 공간언어를 다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다음과 같다.

준거점	장소적 관계	전형적인 언어표현
위	꼭대기, 상위	위에(above, up, on top of)
아래	바닥, 하위	밑에(below, down, under, underneath)
앞	전위	앞에(before, in front of)
뒤	후위	뒤에(behind, back, in back of)
안	내부	안에(inside, within, in)

<표1> 공간의 향(orientation)에 대한 5가지 준거와 그에 따른 언어 표현²⁾

이중 한국어에서 예를 들어 녹음 테이프를 청취하면서 “앞으로 돌려”라고 발화했을 때, ‘앞’은 발화자에 따라 아직 듣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들은 부분일 수도 있다. 이는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움직이는 자아(ego)를 기준으로 자아(ego) 앞에 있는 시간들은 미래가 되며, 이 시간들이 자아(ego)의 뒤로 이동했을 경우 과거가 된다. 즉 분석에 따라 ‘전/후’, ‘앞/뒤’의 의미가 각각 달라지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도 역시 유사한 언어현상이 존재 한다 현대 중국어 방위어³⁾ ‘前

2) 박정운, 「앞으로 한 달 뒤에 만납시다.:시간의 개념적 은유」, 『言語와 言語學』 23호, 71-86, 1998

3) 박경현은 공간 개념어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의 위치, 방향, 크기, 거리, 상태를 인식하는 공간지각(space perception)을 통하여 얻은 개념을 나타내는 어(語)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정의하였다. 공간어는 기존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지만 특별히 개념을 정의한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공간에 대해 지각한 내용을 표현하는 낱말의 총칭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각범주에 속한 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 표현을 공간어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와 대조해 추상적인 시간의 체계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시간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공간을 지각하고 개념화하여 표현하는 낱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위치 의미, 공간감각적 의미, 공간 개념적 의미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공간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 사용하는 ‘앞/뒤’, ‘前/後’는

/后'는 서로 대칭되는 방위어로 다른 언어성분과 함께 명사 혹은 방위를 나타내는 구조로 공간과 시간을 나타낸다.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面前, 背后',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之前, 之后',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前, 后, 前面, 后面, 前边, 后边'이 그것이다. 이들 중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위어들은 실제 사용에서 중의(歧義)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前/後'가 공간과 시간상에서 해석이 달리되고, 또한 의사소통에서 장애가 되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공간의 시각차가 의사소통의 장애가 되는 경우에 관심을 가지며 韓中 양국언어의 공간관, 시간관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한국어 연구는 관련 어휘에 대한 연구와 개념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시간 어휘에 대한 연구는 민현식(1998a, 1998b, 2000) 등에 제시된 체계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은 개념연구로 구체적인 공간개념에서 추상적인 시간 개념으로의 인식 전이와 관련된 논의이다. 특히 임지룡(2002)은 공간어가 은유와 환유의 기제를 통해 시간 개념을 획득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시간의 '인지모형'에 대한 연구로는 평행형, 평행·역행형, 역행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시간 모형에 대한 吉本一(2006) 등의 연구가 있다.⁴⁾

다음으로 중국어 단순 방위어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 중국어의 일음절 방위어는 폐쇄류로 '上、下、前、后、中、左、右、东、西、

사물의 '앞'과 '뒤'의 개념을 나타내는 장소 용어, 즉 공간어이며 이 의미로 중국어로 대응되는 방위어로 '前/后'를 제시하여 서술한다. 노재민, 「공간어에 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2009, 5

4) 관련 용어와 관련해서 吉本一, 「시간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南、北'가 있다. 중국어 방위어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구조주의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丁声树等(1961), 吕叔湘(1984), 邢福义(1995, 2001), 李向农(1997), 储泽祥(1997), 齐沪扬(1998)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인지문법과 문법화⁵⁾ 등의 이론을 배경으로 한 李宇明(2000), 崔希亮(2001), 张谊生(2002), 蓝纯(2003), 方经民(2004)이 있다. 일음절 방위어에 대한 전통적 연구는 일음절 방위어의 서로 다른 용법이 나타내는 공간의미, 시간의미 혹은 더욱 추상화된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 다른 용법 사이에 관계, 변화과정 중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인지문법과 문법화 이론이 중국어 연구에 도입되면서 공시 평면상의 同音形式이 가지는 多义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⁶⁾ 인지문법에서 공간범주는 인간이 매우 추상적인 사물들을 인지할 때 은유확장의 기반이 된다고 본다. 또 문법화 이론에서 공간어는 '공간역 → 시간역 → 성질역'의 변화과정을 거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일음절 방위어 범주가 시간역이나 더욱 추상적인 성질역으로 변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본다.⁷⁾

또한 韓中 시간, 공간표현에 관한 대조연구 논문도 적지 않은데 유성은(2005), 정운철(2005), 정소영(2006), 이선희(2009), 조경환(2009), 진현(2011) 등이 있다.

5) 중국 언어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문법화'를 허화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孙朝奋(1994)이 Bernd Heine, Ulrik Claudi & Hvnneyet의 《grammaticalization-A Conceptual Framework》을 소개할 당시 이를 《虚化论》으로 번역했던 영향이 크다. '虚化'는 문법화의 중요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문법화의 전반적인 과정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문법화는 의미상의 허화뿐 아니라 语音의 약화, 특히 어법적 공기(搭配)의 일반화(泛化), 화용상의 탈색(淡化)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허화는 단어 의미의 '实'에서 '虚'로의 변화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문법화의 범위는 허화보다 넓으며 '문법화=허화'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김선아, 「现代中国语 文法化 研究의 现况 - 연속변이(continnium)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제17집, 2007, 11-20

6) 王莉, 「汉语方位词“前、后、里、外”研究」, 河南大学研究生院硕士学位论文, 2008, 15-20

7) 李晋霞·刘云, 「从概念域看单音方位词语法化的非匀质性」, 『语言科学』第4期, 2006, 3

먼저 유성은(2005)은 '前/后'는 모두 시간어와 공기하지만 '前'은 과거 시제와만 공기할 뿐 미래시제와는 공기할 수 없으며 '后'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이 과거시제, 미래시제와 모두 공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韓中 방위어의 사용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정윤철(2005)은 韓中 작문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공간표현에 대한 대조분석을 하고 오류의 원인이 모국의 '격조사'에 있다고 제시했다. 정소영(2006)은 '上/下/前/后'의 공간, 시간적 기능에 관한 한국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중국어의 '上/下/前/后'의 공간과 시간상에서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사용상 오류는 이들을 단편적인 개별 단어로 인식하여 진행된 수업, 모국어의 간섭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또 '前'과 '上'은 호환 가능하지만 '下', '后'는 호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원인이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 축에서는 혼용될 수 없었던 공간용어들이 과거의 시간 축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선희(2009)는 인지언어학의 시각에서 현대중국어의 시간의 개념화 양상들을 분석하였다. 즉 중국어에서 시간의 개념화는 한국어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중국어에서 시간의 은유화 양상은 주로 '시간은 공간', '시간은 사물', '시간은 돈/유한한 자원', '시간은 흐르는 물', '시간은 사람/절대자'의 다섯 가지 개념적 은유기제를 통해 특징 지워진다고 제시했다. 조경환(2009)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前/后' 표현 간에 존재하는 대칭성과 비대칭성을 Boroditsky(2001) 등의 주장에 근거하여 각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의 다른 개념적인 체계로부터 발생한 차이라고 보았다. 즉 한국어, 영어는 시간에 관하여 수평적인 은유 체계를 선호하는 반면, 중국어는 수직적인 은유 체계를 선호하며 또한 '前/后' 표현만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어는 영어와 중국어 사이의 과도기적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현(2011)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 성과로 중국어에서 공간적 방위를 나타내는 어휘가 시간으로 사상(mapping)될 때 무작위로 사상되는 것이 아니며, 그 사상이 대

단히 구조적임을 제시했다.

이렇게 선행연구에서 중국어 ‘前/后’와 한국어 관련표현의 대응양상을 분석하고 ‘前’과 ‘上’의 호환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차이점을 제시한 정도이다. 또 특정 언어가 고유한 문화적 특성으로 특정한 은유체계를 가질 수 있지만 인간의 경험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간과 시간의 수평적, 수직적 은유체계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와 함께 ‘前/后’의 의미적 비대칭성도 유사하게 표현된다.⁸⁾ 徐单(2008:504-505)은 중국어에서 시간이 동은 ‘上午/下午’와 같이 위에서 아래의 운동이라고 보았다. 즉 ‘上’은 사건발생 이전, ‘下’는 사건발생 이후를 나타낸다. 영어는 대부분의 언어와 같이 시간에 대해 수평적이지만 수직적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시간이 되었다’라는 ‘Time is up(时间到了)’과 다음 차레를 물어보는 Who’s up?(下一个是谁?)이 그것이다.

또한 ‘前’과 ‘上’의 호환문제에서 ‘前’, ‘后’ 사이에는 ‘前半/中半/后半’, ‘前任/现任/后任’, ‘前途/中途’와 같이 중간 시간의 존재 가능성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前/后’에는 중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앞/뒤’, ‘前/後’의 韓中認知體系

3.1 ‘앞/뒤’와 ‘前後’의 의미

본 절에서는 우선 한국어 ‘앞/뒤’와 중국어 ‘前/后’의 원형 의미와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다음 절에서는 이들의 인지체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

8) 吉本一의 복합형 시간모형, 张建理(2003)의 ‘左视’, ‘右视’모형은 각 언어의 시간모형이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吉本一, 「시간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참조.

저 앞의 원형의미는 지각자의 시각을 통해 기준과 같은 방향의 대상위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앞'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 (1) '앞'의 사전적 의미
- a.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
 - b. 차례나 열에 앞서는 곳.
 - c. 이미 지나간 시간.
 - d. 장차 올 시간.
 - e. 신체나 물체의 전면.
 - f. 차례에 따라 돌아오거나 맡은 몫.
 - g. 어떤 조건에 처한 상태.

한편 '뒤'의 원형 의미는 지각자의 시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기준과 반대 방향에 있는 대상의 위치나 공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뒤'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⁹⁾

- (2) '뒤'의 사전적 의미
- a.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쪽이나 곳.
 - b. 시간이나 순서상으로 다음이나 나중.
 - c. 보이지 않는 배후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 d. 일의 끝이나 마지막이 되는 부분.
 - e. 선행한 것의 다음을 잇는 것.
 - f.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이바지하거나 도와주는 힘.
 - g. 어떤 일이 진행된 다음에 나타난 자취나 흔적 또는 결과
 - h.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감정.

한편 중국어의 관련 연구 중 方经民(1999b:34)은 방위어의 기본역할은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대 중국어의 방위어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 5가지로

9) '앞/뒤'의 사전적 의미는 모두 노재민, 「공간어에 관한 인지미론적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2009, 46-50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3) 중국어 방위어의 분류

- a. 수평방향1: 前、后、左、右
- b. 수평방향2: 东、南、西、北
- c. 수직방향: 上、下
- d. 내외방향(輻辳方向): 里(内、中)、外
- e. 범공간(泛方向): 旁、间、中、旁边、附近、周围、中间

(3a), (3b)는 모두 수평방향으로 (3a)는 인류의 자신과 주위에 대한 상대적인 수평공간관계인식을 나타낸다. 이들은 언어 환경 중의 사람 혹은 의인화될 수 있는 사물의 방향을 참조점으로 삼아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물체의 방향 혹은 전진하는 방향을 ‘前’으로 보고, 뒤 혹은 멀어지는 방향을 ‘后’로 본다. (3b)는 인류의 우주에 대한 절대적인 수평공간관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우주의 확정된 지점을 참조점으로 삼아 일출과 일몰의 방향이 ‘东西’, 남극과 북극의 방향이 ‘南北’이 된다. (3c)는 인류의 지구인력에 대한 인식으로 지구의 인력에 순응하는 방향을 ‘下’, 그 반대를 ‘上’로 삼았다. (3d)는 인간의 공간범위, 경계관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중심, 폐쇄된 방향을 ‘里’, 그 반대를 ‘外’라고 한다. (3e)는 인류의 사물에 대한 거리관계의 인식을 말한다.

이중에서 ‘前’은 『说文解字』에서와 같이 처음부터는 동사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다’의 뜻이며 그 진행 방향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前’, 등지고 있는 방향을 ‘后’라고 보았다.¹¹⁾ 먼저 현대 중국어에서 ‘前’과 ‘后’는 다음과 같은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¹²⁾

10) 方经民, 「汉语空间方位参照的认知结构」, 『世界汉语教学』 第4期, 1999b 34

11) “舟(前), 不行而进谓之舟(前), 从止在舟上”, “後(后), 迟也。迟, 徐行也”, 刘晶·邵志洪, 「前后的意象图式及其在登幽州台歌中的翻译」, 『东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11卷增刊, 2009, 200-202

12) 李晋霞·刘云, 「从概念域看单音方位词语法化的非匀质性」, 『语言科学』 第4期, 2006, 6-8

- (4) '前'의 사전적 의미
- 공간의 앞 : 窗前、樓前
 - 추상적인 공간의 앞 : 在重重困難前、前兩名
 - 시간 : 前景、前總統、年前、學齡前
- (5) '后'의 사전적 의미
- 공간의 뒤 : 屋后、后门
 - 추상적 공간의 뒤 : 后盾、在背后说坏话
 - 시간 : 今后、演出结束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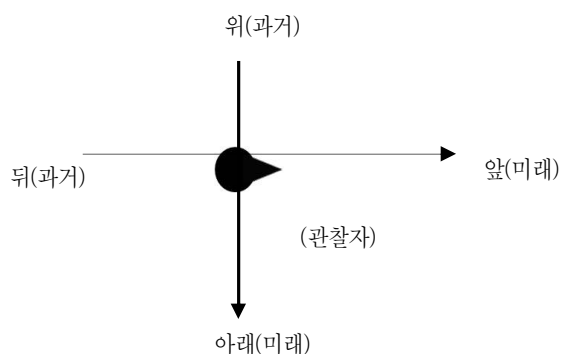
3.2 認知模型

공간 내에서 움직임은 시간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시간 지향 은유를 통해 나타나며, '앞/뒤/위/아래'와 같은 방향에 의해 과거, 현재, 미래를 인지한다. 언어 보편적으로 시간이 공간을 통해 은유적으로 개념화될 때는 '수평적 은유', 특히 '앞/뒤' 관계에 의해 개념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의 수화에서도 시간이 '앞/뒤'의 공간개념으로 은유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어와 같은 일부 언어에서는 '위/아래'의 수직적 관계에 의해 개념화되기도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위/아래' 개념이 시간영역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다.

- (6)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 (7)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전통은 앞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갈** 것이다.

수직적 시간은유는 '上旬-中旬-下旬', '上半期-下半期' 와 같이 주로 한자어에서 많이 나타난다. 한자어 '上/中/下'가 시간영역에서 사용되면 주로 주기적인 시간개념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자어든 순수 국어든 수직적 시간은유에



<그림1> 시간 지향 은유¹⁴⁾

서는 ‘위’가 먼저 시간을 나타내고 ‘아래’가 나중시간을 나타낸다. 순 우리말 ‘위/아래’가 수직적 시간은유를 나타낼 경우, 주기성은 없고 사건들 간의 시간적 순서 매김은 나타나지 않는다.¹³⁾

이러한 시간 지향 은유를 바탕으로 나타난 시간 모형은 일반적으로 시간 이동 모형, 자아 이동 모형의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¹⁵⁾ 첫째, 시간 이동 모형은 시간이 이동한다고 이해되는 모형인데, 이 모형에서 관찰자는 현재 위치에서 시간을 관찰한다. 즉, 시간의 흐름이 미래에서 과거로 관찰자를 거쳐서 이동하는 모형이다. 이 은유는 결국 시간을 관찰자를 향해 다가오는 사물로 보

13) 이는 중국어 ‘上/下’와 유사한 용법으로 제4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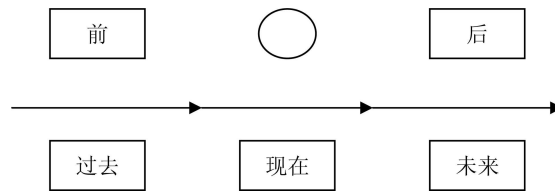
14) 임태성, 「한국어의 ‘시간’ 속성과 모형 연구」, 경북대학교 국어교육전공 대학원 문학 석사학위논문, 2010, 35

15) 시간 모형에 대한 용어 쓰임에 있어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는데, ‘시간 이동 모형’, ‘자아 이동 모형’ 각각을 임지룡 외 역(2000)에서는 ‘움직이는 시간 은유’, ‘움직이는 자아 은유’로, 박정운(1998)에서는 ‘시간이동은유’, ‘사람이동은유’로 吉本一(2002: 3-4)에서는 ‘시간 이동’과 ‘세계 이동’으로, Evans(2002a)에서는 ‘복합적인 움직이는 시간(complex moving time)’, ‘복합적인 움직이는 자아(complex moving ego)’라는 용어를 정의하였다. 임태성, 「한국어의 ‘시간’ 속성과 모형 연구」, 경북대학교 국어교육전공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2010, 37

는 시간 이동 은유(the moving time metaphor)와 통한다. 이때 관찰자는 정지해있고 다가오는 시간의 앞쪽은 과거가 되고 뒤에 오는 것은 미래가 되는데 다음 예와 같다.

- (8) 명절(설, 추석, 크리스마스)/오늘(어제, 내일)이_____.
 (오다, 다가오다, 돌아오다, 찾아오다, 흘러오다, 지나오다, 넘어오다)
 (가다, 다가가다, 돌아가다, 찾아가다, 흘러가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것은 한국어에서 어휘 시간이 주어로 나타나고,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오다, 가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오다'는 시간이 관찰자를 향해 이동하는 것이고, '가다'는 관찰자를 지나 멀어져 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도 이 은유를 상당히 많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2> 시간이동모형과 '前/后'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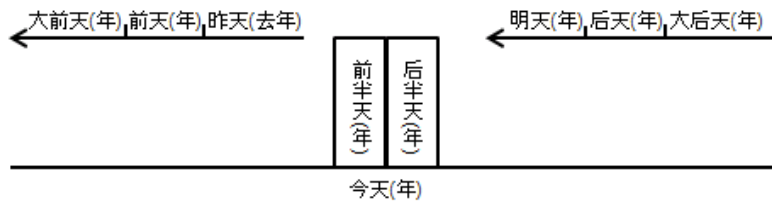
위 모형은 사람을 중심으로 화살표 즉 시간이 '앞(前)'에서 '뒤(后)'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古詩歌에서도 시간 이동 모형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¹⁷⁾ 이와 관련하여 王力은 古代汉语에서 '后'는 '先', '前'과

16) <그림2>, <그림4>에서 원은 사람을 나타낸다. 또 <그림3>은 <그림2>의 논의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刘晶·邵志洪, 「前后的意象图式及其在登幽州台歌中的翻译」第11卷 增刊, 东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9, 200-202

17) 중국인들 역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자아 이동방식보다 시간 이동 방식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예와 같다.

a. 前天-后天 前年-后年 前辈-后辈 以前-以后 前期-后期 前世-后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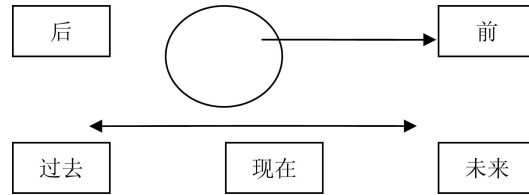
상대되므로 ‘先, 前, 后’ 세 단어는 모두 동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간이 오는 것(迎面而来)’과 같이 사람도 이 세계에 ‘온’ 것으로 보고 주체인 ‘나’를 기준으로 자신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을 ‘前’, ‘先’으로, 자신보다 늦은 사람을 ‘后’라고 본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⁸⁾



<그림3> 시간이동모형과 중국어 ‘前/後’¹⁹⁾

둘째는 자아 이동 모형(moving ego metaphor)으로 관찰자인 자아가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관찰자는 현재 위치에서 특정한 시간에 이동하는 것으로 도식화되는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b. 前事不忘, 后事之师 (이전의 경험을 잊지 않으면 이후의 귀감이 된다)
前入栽树, 后人乘凉 (선인의 노력으로 후대 사람들이 덕을 입다)
- c. 史无前例 前车之鉴前功尽弃 前所未有的
空前绝后 思前虑后 后起之秀 后继有人
- d. 天不再与, 时不久留, 时不我待。张建理, 「汉语时间系统中的“前”、“后”认知和表达」, 『浙江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第33卷 第5期, 2003, 87-88, 이선희, 「현대중국어 ‘시간’의 개념화 양상」, 『중국어문학논집』 제57호, 2009, 56, 刘晶·邵志洪, 「前后的意象图式及其在登幽州台歌中的翻译」, 『东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11卷 增刊, 2009, 200-202
- 18) 李计伟, 「方位词“前”、“后”的语义认知基础与对外汉语教学」, 『语文知识』01期, 2007年, 84-85
- 19) <그림3>은 <그림2>의 논의를 기반으로 확장된 것이지만 화살표 방향이 상반된다. 이는 <그림2>의 화살표와 <그림3>의 화살표가 p8에서 논의될 ‘右视型’과 ‘左视型’ 구조를 각각 기반으로 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李计伟, 「方位词“前”、“后”的语义认知基础与对外汉语教学」, 『语文知识』01期, 2007年, 84-85



<그림4> 자아이동모형과 '前/后'

<그림4>에서 원으로 표시된 사람은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준이 되는 시간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로 나타낸다. 즉 주체인 사람이 나아가는 곳이 '앞(前)'이며 지나쳐 온 곳이 '뒤(后)'가 된다. 자아이동모형은 관찰자인 '자아'가 시간의 한 점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어에는 말하는 주체가 주어로 기능하고, 어휘 시간이 객체로 나타나는데 다음 예와 같다.

- (9) a.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었다.
 b. 한 주에 25-35시간 정도로, 하루에 6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위의 예문들은 시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자아 이동 모형'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자아인 관찰자가 시간 흐름에 직접 나타남을 말한다. 이렇게 한국어 자아 이동 모형은 반복성을 나타내는 어휘들과 결합하여 그 의미를 더 정교화 한다. 이동 방향에 따라 현재(기준 시점)보다 과거는 '뒤', 현재(기준 시점)보다 미래는 '앞'으로 표현된다. 한자어 '前/后'는 단독으로 이 유형에서 쓰이지 않고 숙어로만 쓰이는데 '前途, 前程, 前路' 등이 있다.

- (10) a.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b. 지금 우리는 뒤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c. 그가 걸어온 관계의 경력만 해도 전도(前途)가 이미 훤히 인물이었다.

중국어에서도 '前途', '前程' 등은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途, 程'

은 모두 ‘길(路)’과 연관, 중국인의 인지에서 길은 자신이 마주하는 방향, 즉 자신의 ‘前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래’ 혹은 ‘장래’가 된다.

한국어의 시간 이동형에서는 ‘앞’은 그다지 쓰이지 않고 ‘뒤’나 한자어 ‘前/後’가 많이 쓰인다. 또 자아 이동형에서는 한자어 ‘前/後’는 쓰이지 않고 ‘뒤’도 그 용례가 적으며 앞만 약간 쓰일 뿐이다. 吉本—(1998)은 이러한 시간 전후 표현과 방위조사의 결합에는 여러 제약이 있고 그 결합된 형태의 쓰임은 시간 이동형과 자아 이동형에서 거의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고 지적했는데 이를 다음의 표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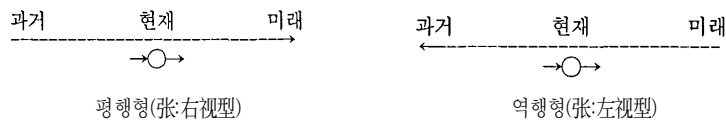
	시간 이동형	자아 이동형
앞	△	○
뒤	○	△
前	○	×
後	○	×

<표2> 한국어 시간 ‘앞/뒤’, ‘前/後’ 표현의 시간 이동형과 자아 이동형

张建理(2003:84-90)는 중국어에서 이러한 시간 이동모형을 ‘右视型’과 ‘左视型’로 나누고, ‘右视型’의 ‘前/后’는 각각 ‘미래와 과거’, ‘左视型’의 ‘前/后’는 ‘과거와 미래’로 보았다. ‘右视型’은 매우 강한 생산력을 지닌 개념은유로 생동하는 문장이나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이는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 동사로 의미가 실현되고 ‘前/后’ 개념은 함축된다. 이에 반해 ‘左视型’은 순서와 관련된다. ‘右视型’과 ‘左视型’의 각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1) a. 我们要努力工作, **前面**可能还有困难。(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 열심히 해야 한다.)
 b. **瞻前顾后**(일의 앞과 뒤를 두루 파악하다.)
- (12) a. **前面**已经说过, 这个困难必须克服。(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문제는 기필코 극복해야 한다.)
 b. **惩前毖后**(과거의 실패를 훗날의 교훈으로 삼다.)

이와 관련하여 吉本—(2006:11-12)은 인과법칙, 삶의 시간,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간 인식인 ‘평행형’과 회상·예상의 시간, 과거·미래를 바라본 시간 인식인 ‘역행형’을 제시했다. 평행형은 우리 인간 및 주위의 세계도 시간도 ‘과거 → 현재 → 미래’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 표현하는 형식이다. ‘역행형’은 인간 및 주위 세계와 시간이 서로 마주보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 표현하는 형식으로 시간은 반대로 ‘미래 → 현재 → 과거’로 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5> 평행형과 역행형

중국어에서 ‘右视型’의 생산력이 ‘左视型’보다 높은 현상은 인류의 일반적인 생활상의 경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右视型’은 미래를 향하고 있으며 현재에서 미래의 시간에 관심을 가진다. 인간은 현재에 태어나고 미래로 삶을 영위한다. 일도 공부도 모두 미래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기 때문에 ‘左视型’보다 ‘右视型’이 더 넓은 세분화와 보다 더 강력한 은유의 상상력을 지니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右视型’에서 ‘左视型’ 모형이 파생된 것이라고 보았다. 吉本—(2002) 역시 평행형, 즉 张建理(2003)의 ‘右视型’ 인식이 더 기본적인 것이고 역행형 시간 인식은 거기서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다음 예문을 보자.

- (13) a. **앞**으로 100년 뒤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 b. **앞**으로 1년 뒤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신은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를 어떻게 살겠는가?

위의 예문 (13a)는 미래를 바라볼 것을 촉구하는 문장인데, 한 문장 안에서

미래의 의미를 ‘앞’과 ‘뒤’라는 서로 상반된 단어로 표현했다. 또 (13b)는 미래의 어느 시점을 나타내면서 앞과 뒤 모두 ‘나중’의 동일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지룡 외 역(2002: 221-222)에서 “어떤 개념적 은유 즉 시간 이동 모형, 자아 이동 모형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동일한 표현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간 모형의 중의성을 말하였다.

두 모형에서 ‘시간’이 이동을 하든지, ‘자아’가 이동을 하든지 다른 하나의 속성은 배경으로써 작용한다. 이것은 관찰자와 시간 사이의 운동에 대한 ‘이중성(duality)’으로 나타나는데, 서로에 대한 ‘전경-배경의 역전(figure-ground reversal)’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시간의 속성이 ‘전경-배경의 역전’에서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시간 인식이 두 모형으로 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두 모형 간에 인식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²⁰⁾

4. ‘앞/뒤’, ‘前/後’의 韓中隱喻對照

4.1 한국어 ‘앞/뒤’의 은유

문법화 이론에서는 공간범주의 은유과정을 ‘공간역 → 시간역 → 성질역’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일음절 방위어가 공간범주에서 시간범주, 그리고 더욱 추상화된 성질범주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²¹⁾ 한국어 다의어의 의미 확장 양상에 관해 임지룡(1997:240)은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14) 다의어의 의미 확장 양상

20) 은유는 흔히 서로의 전경-배경이 역전된 쌍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은유쌍을 이중쌍(duals)이라고 한다. 많은 은유적 사상들은 공간상의 이동을 근원 영역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공간상의 이동 때문에 형태와 배경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21) 李晋霞·刘云, 「从概念域看单音方位词语法化的非匀质性」, 『语言科学』第4期, 2006, 3

- a. 사람→짐승→생물→ 무생물의 확장
- b. 구체성 → 추상성의 확장
- c. 공간 → 시간 추상
- d.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확장
- e. 일반성 비유성 관용성의 확장
- f. 내용어 기능어의 방향으로 확장

이러한 양상 중 본고는 공간어의 특성과 관련하여 의미 확장 기준을 ‘구체성 → 추상성’, ‘공간 → 시간 → 추상’으로 삼으며 의미유형에서 확장의미 순위는 사용빈도수가 높은 것이 우선한다고 본다.²²⁾

어휘항목	앞(300)		
의미유형	공간(129)	시간(154)	추상(17)
확장의미 순위	a. 방향-쪽(105)	a. 시간 -미래(154)	a. 상태-조건, 영향(7)
	b. 차례-열(20)		b. 몫-차례, 책임(5)
	c. 전면-신체, 물체(4)		c. '에게'-인칭대명사(5)

<표3> '앞'의 확장의미

위의 표에서 '앞'의 원형의미인 '기준과 같은 방향의 대상 위치'가 사용빈도 볼 때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간 차원의 원형 의미보다 시간영역으로의 의미가 확장된 [미래]의 자질을 지닌 표현이 더 활성화되어 사용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5) a. 우리는 학교 **앞**에서 만났다. ('앞'의 원형 의미)
- b. **앞**으로 인공지능 컴퓨터 시대가 올 것이다. (미래시간)
- c. 정치개혁이란 현안이 눈**앞**에 있다.
 그는 자기 **앞**도 못 가리는 사람이다. (조건, 상태)

22) 앞뒤의 언어자료를 각각 300개씩 추출하여 그 확장된 의미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 언어자료의 숫자를 나타낸다. 노재민, 「공간어에 관한 인지의 미론적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2009, 69

위 <표3>에서는 ‘앞’의 확장 의미 중 [과거] 의미를 가진 용례는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아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리는 앞 세대 분들의 글에서 누적된 경험을 존중해야한다”와 같은 표현을 볼 때 그 쓰임은 확인된다. 또 위 예문(15c)는 어떤 조건에 처한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건은 정치개혁이라는 제도와 의식에 해당, 차례에 따라 돌아오거나 맡은 몫의 의미로 이들은 원형의 의미가 추상적 영역으로 확장됨을 보여주는 예이다.

어휘항목	뒤(300)		
의미유형	공간(24)	시간(239)	추상(37)
확장의미 순위	a. 향-반대(24)	a. 시간-다음, 나중(239)	a. 흔적, 결과(19)
			b. 배후(11)
			c. 후행-다음(4)
			d. 일-끝, 마지막(3)

<표4> ‘뒤’의 확장의미

위의 표에 의하면 ‘뒤’의 원형의미, 즉 기준과 반대 방향에 있는 대상의 위치나 공간을 내포한 용례들의 사용 빈도는 매우 낮다. 반면 시간개념 ‘뒤’의 표현은 사용 빈도로 볼 때 매우 활성화시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뒤’는 과거와 미래 모두 사용되고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16) a. 그는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 (뒤의 원형의미)
 b. 그는 몇 시간 뒤에 왔다. (시간: 순서)
 c. 그녀는 수술 뒤에 더 아프다. (흔적, 결과)
 d. 그 사람의 뒤를 추적해라. (배후)
 e. 그는 뒤가 급하다. (결과, 끝)
 f.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거품이 다시 생길 것이다. (미래)
 g. 정치개혁이나 발전 문제는 뒤로 한 채 (순서상 다음이나 나중)

이들 ‘앞/뒤’의 의미 확장은 시간역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시간역 안에서

사용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예문을 보자.²³⁾

- (17) a. 십년 앞뒤/후를 내다보아야 한다.
 b. 십년 전을 회상한다.
 (18) a. 건물 앞뒤를 잘 감시해라
 b. 전망 *전/후방(*후)을 주시해라.

위 예문 (17)은 시간적 용법, (18)은 공간적 용법이다. 공간상의 '앞/전', '뒤/후'는 대립되는 방향을 나타내지만, 시간상에서는 (17a)에서 보듯이 '앞/뒤/후'는 미래를 나타내며, '전'은 과거를 나타낸다. '앞을 내다보다'라는 표현은 공간상 전방과 시간상 미래를 동시에 활성화한다.

'앞길'의 경우도 이와 같은데, "마을의 앞길을 넓히다"는 공간상의 '前方'이며 '앞길(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는 시간상 미래를 나타낸다. 한편 "일찍이 앞날의 폭군(暴君)은 있었고 오늘도 그것은 있다(김진섭, 인생 예찬)에서 '앞날'은 '전날' 곧 시간상 과거를 지칭한다.²⁴⁾

- (19) a. 일기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비가 올 것이다.
 b. 우리는 앞에/전에 간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하였다.
 c. 한참 뒤에/후에 전화가 왔다.
 (20) a. 책상 앞으로 나가다
 b. 노인이 앞에(*전에) 앉은 젊은이의 어깨를 툭툭 쳤다.
 c. 그는 내 뒤에(*후에) 앉아 있다.

위의 예에서 볼 때, '앞/전 뒤/후'에 관한 시간적 용법은 공간적 용법을 바

23) 임지룡, 「시간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제77집, 1998, 208-209

24) 中国 古诗에서도 유사한 용례가 있는데 陈子昂(唐)의 「登幽州台歌」, “前不见古人, 后不见来者(이전에도 이만한 성인(圣人)이 없었고, 장래에도 이만한 현자(贤者)가 없을 것이다)”가 바로 그것이다. 徐丹, 「从认知角度看汉语的两对空间词」, 『中国语文』 第6期, 2008, 512, 임지룡, 「시간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제77집, 208

탕으로 개념화된다. 다만 ‘앞/전’, ‘뒤/후’가 공간상에서는 대립을 이루고 있지만, 시간상에서는 미래와 과거 표현이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음이 주목된다. 한자어 ‘전/후’는 시간영역에서 둘 다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순수 국어 어휘인 ‘앞/뒤’에서는 뒤는 시간영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쓰이는데 반해 ‘앞’은 잘 쓰이지 않는다. 다음 예와 같다.²⁵⁾

- (21) a. 인호가 온 뒤/후에 미나가 왔다.
b. 미나가 오기 전/*앞에 인호가 왔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위/아래’는 공간 개념 자체를 표현 하기도 하지만 시간개념이나 추상적 개념으로 전이되어 사용된다. 또한 공간 속에서 대상의 위치나 상태를 지각하여 표현한 원형의미가 다른 확장 의미보다 사용 빈도가 월등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간 → 시간’, ‘공간 → 추상’의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되는데, ‘위/아래’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사용 빈도 상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2 중국어의 ‘前/后’의 은유

먼저 추상적 공간역의 의미로 ‘前/后’는 순서를 나타낸다. 순서를 나타낼 경우, “X前/后是Y”와 “X在Y前/后”의 문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의미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X前/后是Y”의 의미는 “X의 앞/뒤(다음)는 Y이다(X的上一个/下一个是Y)”로 다음 예와 같다.

- (22) a. 这次考试, 小王前是小李, 小李前是小张。
(이번 시험에서 小王보다 小李가 잘했고, 小李보다 小张이 잘했다.)
b. 节目单上, 相声后是小品。(프로그램에는 相声뒤에 小品이다.)

25) 물론 ‘앞’이 시간영역에서 전혀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인호는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먼저 주의를 주었다”의 예와 같다.

“X在Y前/后”는 ‘上一个/下一个’와 같이 ‘바로’ 앞이나 ‘바로’ 뒤라는 순서의 함의는 없다. 다시 다음 예를 보자.

- (23) a. 这次考试小张在小李前, 小李又在小王前。
 (이번 시험에서 小张은 小李보다 잘했고 小李는 小王보다 잘했다.)
 b. 节目单上, 小品在相声后。(프로그램에는 小品은 相声 뒤에 있다.)

(23a)에서 ‘小张’과 ‘小李’ 사이에 ‘小赵’ 등의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23b)의 ‘小品’과 ‘相声’ 사이에는 무용, 서커스 등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前/后’는 추상역에서 시간역으로 변화되면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시간명사와 결합하여 시점과 시간(时段)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건명사와 결합하여 그 사건에 앞과 뒤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 ‘前后’는 동사성 성분과 결합이 가능한데 한 동작의 ‘앞’과 ‘뒤’를 나타낸다. ‘前/后’는 거의 모든 동사성 성분과 결합이 가능하지만 일음절 동사와 결합할 때는 음절상 제약을 가진다. 즉 일음절 동사와 동사성 성분이 결합할 경우, 목적어나 보어를 보충하여 음절을 보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음 예와 같다.²⁶⁾

- (24) a. ?打前你想什么来着?
 b. 打人前你想什么来着? (때리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한 것인가?)
 (25) a. ?扔后我就后悔了。
 b. 扔出去后我就后悔了. (던지고 나서 곧 후회했다.)

26) 单宝顺은 ‘加以、进行’ 등 虚义动词 외에는 모두 결합가능하다고 보았다. 单宝顺, 「论现代汉语空间方位概念的表达与单纯方位词」, 首都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285. “对这些问题我们进行了认真的讨论”, “我们认真讨论这些问题”에서 동사 ‘进行’과 같이 원래의 의미를 거의 상실했거나 약화되어 뒤에 반드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이음절 빈어를 선택 결합하는 동사를 ‘虚义动词’ 혹은 ‘형식동사(dummy verb)’라고 한다. 김선아, 「현대중국어 동사의 문법화-“허화동사虚化动词”류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제19집, 2004, 115-119

또한 동사성 성분과 결합하여 시간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前/后’의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前’이 동사의 긍정식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와 동사의 부정식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가 같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后’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26) a. 他入党前便积极要求自己。(입당 전 그는 자신에게 엄격했다.)
 b. 他没有入党前便积极要求自己。(입당 전 그는 자신에게 엄격했다.)
 c. 他入党后更加积极要求自己。(그는 입당 후 더욱 자신을 엄격히 다스렸다.)
 d. 他没有入党后更加积极要求自己。(그는 입당 후 자신에게 더욱 엄격히 한 것은 아니다.)
- (27) a. 他死前是我们公司的最优秀的员工。(그는 생전에 우리 회사의 최우수 사원이었다.)
 b. 他没死前是我们公司的最优秀的员工。(그는 죽기 전 우리 회사의 최우수 사원이었다.)
 c. 他死后被万人所景仰。(그는 사후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d. 他没死后被万人所景仰。(그는 죽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다.)

위 예문에서 ‘入党前’은 ‘没有入党前’과 같고 ‘死前’은 ‘没死前’과 같은 곧, ‘生前’의 의미이다. 이는 ‘前/后’가 시간의미를 나타낼 때 이와 결합하는 단어가 경계의 의미를 가지거나 변화의 사건이나 상태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람은 출생부터 ‘입당하지 않으며(没有入党)’, 당연히 ‘살아있는(没死)’ 것이다. 그렇다면 ‘没有入党’과 ‘没死’는 모두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상태이다. 의미상 사람에게는 ‘입당하지 않은 상태의 전(没有入党的状态前)’, ‘살아있는 상태 전(没死的状态前)’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前’, ‘后’의 의미는 일치된다.

이와 관련해서 戚晓杰(2005)는 ‘前’은 방위 시점을 전환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没有入党前’에서 ‘前’은 ‘没有入党’을 그 방위 시점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이와 상대되는 ‘入党’을 방위시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没有入党前’은 ‘入党前’의 의미에 해당한다. 그러나 ‘后’의 경우는 다

르다. 오히려 '상태'를 '사건'으로 전환시키게 되는데 예문 (d), (d)가 만약 성립한다면 'X后'의 'X'는 상태가 아니라 '변화된 사건'으로 인식해야한다. 즉 '입당을 희망했으나 이루지 못했다(希望入党却落选了)', '죽었어야하는데 요행히 살았다(应该死却幸存了)'등의 의미인 것이다.²⁷⁾

'前'과 '后'는 모두 동사 앞뒤에서 공히 부사어 '前+V, 后+V, V+前, V+后' 형식이 가능하다. '前+V'와 'V+前'에서 '前'은 대부분 공간위치를 나타낸다. 이에 반해 '后+V'의 '后'는 일반적으로 시간 순서를 나타낸다. 'V+后'의 '后'는 공간위치와 시간순서 모두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어 환경이 있어야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前'이 공간역에 더욱 활성화되어있으며 '后'는 시간역에 더욱 활성화되어있음을 입증한다.²⁸⁾

줄을 서있을 경우, '다음 사람'의 의미로 중국어에서는 '*后一位'가 아니라 '下一位'로 표현한다. 北京大学汉语语言学研究中心의 코퍼스(838,803,906字)에서 현대 중국어에서 '下一位'의 사용 횟수는 28회, '下面一位'는 3회로 나타났다. 또 '后一位' 14회, '后者, 第二个人, 后面一位' 등과 같은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대 중국어에서 방위어가 '一位'와 결합할 때 단순 방위어가 더 상용되며 수직표현이 수평표현보다 더 보편적임을 보여준다.²⁹⁾

다른 예를 다시 보자. 기차나 자동차의 운동은 전형적인 수평운동이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수평이동은 중국어에서는 '上一站', '下一站'과 같이 '上/下'의 수직이동으로 표현된다. 공간인지평면에서의 수평이동이 언어평면에서 수직이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다른 언어와는 구별되는 중국어의 특징이다. 또한 이들 수평과 수직이동은 서로 호환되기도 하는데 다음 예와 같다.

(28) a. 眼下 b. 眼前

(29) a. 下代人 b. 后代人

27) 单宝顺, 「论现代汉语空间方位概念的表达与单纯方位词」, 首都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8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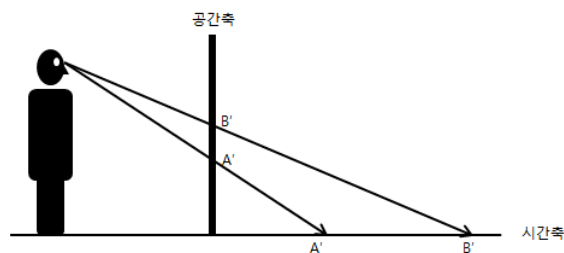
28)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는 방위어 '后'가 '前' 보다 문법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29) 徐丹, 「从认知角度看汉语的两对空间词」, 『中国语文』第6期, 2008, 508

예 (28)에서 ‘下’는 ‘前’과 같으며 모두 뚜렷한 공간의미를 지닌다. (29)에서 ‘下’는 ‘后’와 같으며 ‘下’는 ‘上代人/下代人’로 ‘上’과 대칭된다. 그러나 ‘前/后’는 서로 비대칭적인데 ‘后代’는 가능하지만 ‘*前代’는 불가능하다.³⁰⁾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수평과 수직이동의 호환현상에 대해 徐蓮(2008: 26-29)은 중국어 ‘上/下’와 일본어 ‘前(先)/后’, 일본어 ‘가다/오다’의 대응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 즉 공간개념의 시간역으로의 확장은 인류언어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각 언어는 서로 다른 공간관계로서 시간을 은유하기 때문에 인지적 각도에서 각 공간축의 시간역 투사에 교차(交錯)현상이 생긴다. 일본어 ‘前(先)/后’의 시간은유는 수량이나 사용빈도에서 ‘上/下’를 능가하는데 이를 통해 일본어는 수평축의 시간역으로의 확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어에서 시간개념을 나타내는 ‘上/下’는 일본어의 ‘前(先)/后’ 혹은 수평축 이동표현인 일본어 ‘가다/오다’로 번역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대응관계는 인지적 각도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머리가 위, 다리는 아래로 향한다. 만약 인간이 동물들과 같이 사지를 모두 쓴다면 머리가 앞, 다리는 뒤가 되며 ‘上/下’와 ‘前/后’는 자연스러운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다음 그림을 보자.



<그림6> ‘前/后’, ‘來/去’, ‘上/下’ 대응의 투사

<그림6> 점 B'는 공간축에서 조금 떨어진 시간축 B에 투사된다. 주체의 시

30) 이선희, 「현대중국어 ‘시간’의 개념화 양상」, 『중국어문학논집』 제57호, 2009, 51-73

각에서 B는 A의 앞으로 '上=前', '下=后'의 인지가 성립되게 된다. 고대 중국어에서 '去'의 본래의미는 '멀리 떨어진'의 의미로 주체에서 떨어진 B는 '去'로 나타나면서 '上=去', '下=來'의 대응도 형성되게 된다. 또한 중국어 공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시간은유는 '前/后'로 비교적 이르게 형성되어 독립성이 비교적 강하다. '前/后'는 시간단어가 없어도 독립적으로 시간을 지시할 수 있다. 고대 중국어에서 '午前/午後', '先月/來月'의 표현은 이미 唐代 이전에 형성되었고 '上午/下午', '上月/下月'은 清代에 들어와서야 생겨났다.³¹⁾

통시적 각도에서 '前/后'의 시공간 은유는 그 발전 혹은 확장이 정점을 찍은 후에 점차 '上/下'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아직도 '前/后', '上/下'가 공존하는 용례가 많이 있다. 王磊(2007)는 '前/后'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쉽게 바뀌는 대립되는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표현을 위해 중국어에서는 ' 마주보기(相向型)'의 인지책략으로 의미가 비교적 고정된 '上/下'를 썼다고 보았다.³²⁾

이와 같이 '上/下'와 관련하여 藍純(1999)은 태양이 아침에 지평선에서 솟아올라 정오가 되면 가장 높은 곳에서 '上午'가 되며 이때 '위'는 이른 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 오후에는 태양이 점차 떨어져 지평선 아래로 이동하게 되므로 '下午'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아래는 늦은 시간이 된다고 보았다. 또 李宇明(1999)도 시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높낮이'를 가지고 있어서 공간에서의 높낮이가 시간에서의 과거와 미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보았다. 즉, 공간에서의 높낮이가 시간역으로 전이되어 이른 시간과 과거는 '높은 곳'이 되고 늦은 시간과 미래는 '낮은 곳'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上/下'는 자연물인 시간운동에 따른 태양의 움직임

31) '前'과 '后'는 모두 원래 위치 이동 동사로 魏晉南北朝 시기에 虛化되어 방위 후치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 둘의 문법화 정도는 서로 다른데 '后'의 문법화 정도가 '前'보다 높아 즉 어기사(语气词)로 변화했다. '后'는 고대 중국어에서 시간역에서 주로 쓰였고 '前'은 공간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王莉, 「汉语方位词“前、后、里、外”研究」, 河南大学硕士学位论文, 2008, 11-12

32) 이선희, 「현대중국어 '시간'의 개념화 양상」, 『중국어문학논집』 제57호, 51-55

임, 상류와 하류의 흐름의 은유에서 ‘前/后’ 보다는 원형적이고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순서의 ‘前後’의 개념을 사용할 때 기존의 ‘前後’ 대신 점차 더 고정적인 의미를 가진 ‘上/下’를 쓰기 시작했고 현대 중국어에서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가장 먼저 사용되던 ‘前/后’의 시간은유는 고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일본어에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徐蓮(2008)의 견해는 한국어에 적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³³⁾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에서 한자어 ‘前/后’는 고정된 표현들, 예를 들어 ‘전방(前方), 후방(后方)’을 제외하고는 공간적인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으며 주로 시간적 의미를 나타낸다. 한자어 ‘상/중/하(上/中/下)’가 시간영역으로 사용되면 ‘上旬, 中旬, 下旬’과 같이 주로 주기적인 시간개념을 나타낸다. 또 고유어 ‘위/아래’는 주기성이 없고 화자를 중심으로 ‘위’는 과거, ‘아래’는 미래를 나타낸다. 또한 이들에서는 사건들 간의 시간적 순서 매김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한국인에게는 순서, 차례의 의미는 ‘앞/뒤(다음)’, ‘前/后’, 품질, 상태, 혹은 주기가 있는 순환의 의미는 ‘상/중/하’를 선택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모국어인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로 인해 한국학생들이 중국어의 공간에서의 수평이동이 ‘上一站’, ‘下一站’과 같이 ‘上/下’의 수직이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 잦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前/后’가 성질·상태역, 관계역을 나타나는가 하는 데에는 학자들의 의견이 다른데 대부분 ‘前/后’는 구체적인 공간역에서 추상적인 공간역과 시간역으로 용례가 가장 많다고 본다.³⁴⁾ 李艳华(2006)는 ‘上/下’는 추상적으로

33) 韓日 두 언어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기계번역의 예를 들 수 있다. 한국어의 자동 번역의 경우, 실제로 가능한 수준에 있는 것은 한일 자동번역으로 두 언어 모두 교착어라는 문법적 공통성과 한자어 사용으로 자동 번역의 정확도는 문체에 따라 80-90%이다.

34) H. Clark는 시간은 단일 방향으로 단방향성을 나타내는 공간어로 묘사해야한다고 언급했다.

戴浩一(1994), 「以认知为基础的汉语功能语法刍议」, 薛凤生主编, 『功能主义与汉语语法』,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4. 중국어에서 ‘前/后’는 ‘左/右’와 함께 수평의 시간이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일차원의 수평운동은 단선적(linear)이며 불가역적이다. 이에

시간관계, 사회적 지위, 성격과 수준, 방면 및 부문, 범위를 나타내며 '前/后'는 시간과 순서, 결과, 긍정과 부정, 지지물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 용례는 적지만 '前/后'의 성질·상태역, 관계역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30) a. 在事实前他不得不承认是他错了。(사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b. 在成绩单前, 他羞红了脸。(그는 성적표를 보자 얼굴을 붉혔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성질·상태역에서 '前/后'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첫째, 공개적 상태와 비밀, 은폐의 상태의 '前/后'로 그 예로 '背后捅人一刀、背后乱、前台(공개적인 장소를 비유)'가 있다. 둘째, 좋고 나쁨과 성공과 실패의 결과의 '前/后' 그 예로 '锦绣前程、前程似锦、前途无量、落后、马后炮、缩后、延后、后退'가 있다. 셋째, 장래에 대한 전망과 과거에 대한 회고의 '前/后'이다. 넷째, 호방/대담, 수치/소심의 '前/后'로 그 예로 '勇往直前(胆大)、缩头缩脑(胆小)'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언어의 방위어의 '공간역 → 시간역 → 성질역'으로의 개념역으로의 변화는 자체의 문법화 정도를 나타낸다. 중국어의 단순 방위어를 공식적 평면에서 보면 그 문법화 정도는 '上> 中/下> 前/后> 左/右/东/西/南/北'로 나타나는데 다음 표와 같다.

일음절 방위어	공간역	시간역	성질역
上/下	+	+	+
中	+	+	+
前/后	+	+	-
左/右·东/西/南北	+	-	-

<표5>일음절 방위어의 개념역 분포도³⁵⁾

비해 '上/下'는 주기적이며 순환적이다.

위의 <표5>에서 ‘上/中/下’는 공간역과 시간역, 성질역 모두에, 그리고 ‘前/后’는 공간역과 시간역에 분포되어있으며 문법화 정도도 비교적 높다. ‘左、右、东、西、南、北’은 공간역에 주로 쓰이며 문법화 정도가 가장 낮다. 특히 ‘上/中/下’는 ‘前/后’에 비해 성질역도 포함한다. ‘上’의 경우 부사성 성분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의미는 ‘总体上、根本上、基本上、实际上’의 예와 같이 상당히 문법화된다. 이러한 부사성 성분은 부사어로만 사용되며 ‘基本上完成’, ‘基本完成’과 같이 생략되기도 해서 그 문법화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³⁵⁾

공시평면에서 일음절 방위어의 문법화 정도가 높을수록 다른 형식의 성분과의 결합력도 강해지며 개념역도 다양해진다. ‘上、中、下、前、后’는 명사성 성분뿐만 아니라 술어성 성분과도 결합하며 문법화는 사용빈도와도 정비례관계가 성립한다.

중국어 방위어에서 각 하위 범주 간의 문법화 정도가 상이한 원인은 공간의 주관성과 객관성에 있다. ‘上、下、前、后、左、右’는 인간이 참조점인 주관적 공간개념이며 ‘东、西、南、北’은 태양이 참조점인 객관적 공간개념이다. 이러한 차이는 개념 확장의 가능성을 결정지었다. 즉 주관적 공간개념은 추상적 개념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객관적, 절대적 방위개념에는 그러한 여지 혹은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上/下’, ‘前/后’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虚化되어 성질·상태역까지의 개념적 은유가 진행되었다. 또 문법화의 각도에서 ‘上/下’와 ‘前/后’의 호환문제도 서로 다른 문법화 정도와 표현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적으로 공존하게 된 것이다. 즉 이는 인간이 시간범주를 인식하는 방식이 결코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前后’로 대표되는 수평 인식 모형이 주류를 이루고 ‘上/下’로 대표되는 수직 인식 모형은 비주류이기는 하지만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35) 李晋霞·刘云, 「从概念域看单音方位词语法化的非匀质性」, 『语言科学』 第4期, 2006, 10

36) Heine & Reh는 문법화를 “의미적 복잡성, 화용적 의미, 통사적 자유 그리고 음성적 본질의 측면에서 언어적 단위가 상실되는 진화”라고 하였다. 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 『문법화』, 서울, 한신문화사, 1999 재인용. 이를 통해 ‘上’이 방위어 중 문법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이상에서 한국어 '앞/뒤'와 중국어 '前/后'의 원형 의미와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지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中 공간어는 시간역으로 투사되어 두 개의 시간 모형 즉, 시간 이동 은유(the moving time metaphor)와 자아 이동 은유(moving ego metaphor)에 따라 '앞/뒤', '前/后'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변화된다. 또한 이러한 시간적 중의성 때문에 동일한 표현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며 정반대의 표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둘째, 한국어 '上/下', '前/先/后'와 중국어 관련 표현의 대조를 통해 한국 학생이 중국어 시간개념 '上/下'와 '前/后'의 사용상 오류에 대한 원인을 제시했다. 한국인에게는 순서, 차례의 의미는 '앞/뒤(다음)', '前/后', 품질, 상태, 혹은 주기가 있는 순환의 의미는 '上/中/下'를 선택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모국어인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로 인해 한국학생들이 중국어의 공간에서의 수평이동이 '上一站', '下一站'과 같이 '上/下'의 수직이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 잦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시평면에서 일음절 방위어의 문법화 정도를 제시하고 '前/后' 자체의 문법화 정도를 비교했으며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수평과 수직이동의 호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參考文獻

- 吉本一, 「한국어의 시간 전후 표현」, 『우리말연구』 8권, 1998
- _____, 「시간의 화살'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담화와 인지』 제9권1호, 2002
- _____, 「시간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선아, 「현대 중국어 동사의 문법화-“허화동사虚化动词”류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제19집, 2004
- _____, 「现代中国語 文法化 研究의 現況 - 연속변이(continnium)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제17집, 2007
- 노재민, 「공간어에 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2009
- 박정운, 「앞으로 한 달 뒤에 만납시다.:시간의 개념적 은유」, 『言語와 言語學』 23호, 1998
- 유성은, 「중국어의 시간과 공간 개념 표현에 관한 一考」, 『중국어문학논집』 제33호, 2005
- 이선희, 「현대중국어 '시간'의 개념화 양상」, 『중국어문학논집』 제57호, 2009
- 이종원, 「'맞은편'은 어디인가? 공간언어의 모호성과 의사소통 문제」,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제1호, 2008
-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1997
- _____, 「시간'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제77집, 1998
- _____,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2008.
- 임태성, 「한국어의 '시간' 속성과 모형 연구」, 경북대학교 국어교육전공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2010
- 조경환, 「韓,中,英 “전/후” 표현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중국학논총』Vol.26, 2009
- 정소영, 「중국어 문법 교육에서 본 ‘上, 下, 前, 後’의 시간 공간적 분석」, 『중국언어연구』 제19집, 2004

- 어연구』 제23집, 2006
- 정윤철,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공간표현 대조분석 - 한→중 작문오류를 중심으로」, 『중국연구』Vol.36, 2005
- 진 현, 「중국어 ‘前’과 ‘後’의 시간 은유」, 『중국어문학논집』 제70호, 2011
- 陈晓燕, 「现代汉语方位词中的“前、后”」, 『语文学刊』, 2009
- 戴浩一, 「以认知为基础的汉语功能语法刍议」, 薛凤生主编, 『功能主义与汉语语法』,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4
- 单宝顺, 「论现代汉语空间方位概念的表达与单纯方位词」, 首都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 董为光, 「汉语时间顺序的认知基础」, 『当代语言学』第6卷 第2期, 2004
- 方经民, 「论汉语空间方位参照认知过程中的基本策略」, 『中国语文』第1期, 1999a
- _____, 「汉语空间方位参照的认知结构」, 『世界汉语教学』第4期, 1999b
- _____, 「论汉语空间区域范畴的性质和类型」, 『世界汉语教学』第3期, 2002
- _____, 「现代汉语方位成分的分化和语法化」, 『世界汉语教学』第2期, 2004
- 谷 帅, 「现代汉语方位词“前”、“后”及其相关词用法研究」, 上海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0.
- 李晋霞·刘云, 「从概念域看单音方位词语法化的非匀质性」, 『语言科学』第4期, 2006.
- 李宇明, 「空间在世界认知中的地位」, 邢福义主编, 『文化语言学』, 武汉, 湖北教育出版社, 2000
- 李艳华, 「韩汉方位对比」, 延边大学校 硕士学位论文, 2006
- 刘晶·邵志洪, 「前后的意象图式及其在登幽州台歌中的翻译」, 『东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11卷 增刊, 2009
- 马鹏举·郑 敏, 「现代汉语方位词的定义、类型和范围」, 『现代语文』, 2008
- 韩玉强·刘宾, 「汉语空间隐喻时间中的“前”、“后”认知」, 『修辞学习』4期, 2007
- 史佩信, 「汉语时间表W达中的“前后式”与“来去式”」, 『语言教学与研究』第2期, 2004
- 舒邦新, 「“前”“后”对称说」, 『江汉大学学报人文科学版』4期, 2003
- _____, 「“前”“后”的时间指向及其构成机制」, 『江汉大学学报人文科学版』4期, 2004

- 王 莉, 「汉语方位词“前、后、里、外”研究」, 河南大学 研究生院硕士学位论文, 2008
- 吴福祥, 「汉语方所词语“后”的语义演变」, 『中国语文』第6期, 2007
- 徐 丹, 「从认知角度看汉语的两对空间词」, 『中国语文』第6期, 2008
- 徐 莲, 「汉日上下时空隐喻比较研究」, 『日语学习与研究』增刊, 2008
- 张建理, 「汉语时间系统中的“前”、“后”认知和表达」, 『浙江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第33卷 第5期, 2003
- 周榕, 「隐喻认知基础的心理现实性-时间的空间隐喻表征的实验证据」, 『外语教学与研究』第33卷 第2期, 2001
- Evans, V. & M. Green, 『Cognitive Linguistic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6(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기초』, 서울, 한국문화사, 2008)
- Heine, B,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7(이성하·구현정 역, 『문법의 인지적 기초』, 서울, 박이정, 2004)
- Hopper P.J. & Traugott E.C,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 『문법화』, 서울, 한신문화사, 1999)
- Lakoff G,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노양진·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 Lakoff, George,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이기우 옮김, 『인지 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1994)
- Langacker, R.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Vol.1』,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김종도 옮김, 1999. 『인지문법의 토대 1: 이론적 선행조건들』, 서울, 박이정, 1999)
- Lakoff, G. & M.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1999(임지룡·윤희수·노양진·나익주 옮김,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서울, 박이정, 2002)

Ungerer, F & Schmid, H-J,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6(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개론』, 서울, 태학사, 1998)

<Abstract>

The Contrastive Study about the words of locality between Korean and Chinese

Kim, Seonah

This article, through it's examination of the spatial location reference in Modern Chinese and Korean, explores the basic theory of location refer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inguistics. Spatial relations are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relations in the objective world. Korean and Chinese belong to different types of language, but there are the words of locality in both languages to express the spatial relations. However there are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cause of the different types of language and cognitive styles.

In using the method of contrastive linguistics, this article describes and contrast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Korean and Chinese spatial relations on the both-way. And with the usage of cognitive functionalism for reference, the paper explain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Key Words : cognition, orientational metaphors, qian(前) and hou(后), back and front, before and after, polysemy, the Contras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Chinese

투 고 일 : 2012. 1. 10. / 심 사 일 : 2012. 1. 20. ~ 2012. 2. 10. / 게재확정일 : 2012. 2. 17.